

Samuel H. Moffett

떠나는 宣敎2代 새뮤얼·H·모페트牧師

한국의인이 한국의인다 올때 가장 아름다운 벗서

한국말을 썩 잘해서 뿐만이 아니었다. 長老會 神學大協同學長인 새뮤얼·H·모페트(韓國名 馬三樂)목사의 思考나 行動樣式, 식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질구레한 한국풍습을 지켜나가는 등 그는 웬만한 韓國사람보다 더욱 철저히 코리아나이즈된 韓國人이었다. 이북땅 平壤에서 남아 大同江물에서 띄우고 65년동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苦樂을 함께했던 모페트목사는 정년을 맞아 8월중순 미국 프린스턴大學에서 宣敎學을 가르치기 위해 고향 땅 한국을 떠나 미국에 간다. 父子2代에 걸쳐 90여년동안 이 땅에서 선교를 하고 독립운동을 돕고 배움을 베풀어 온 모페트목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자기 生家가 있는 平壤에 못가보고 귀국하게 된 것을 가장 서운하게 여겼다.

정말 떠나기 설설해

—과란 눈에 큰 키, 게스처를 섞어가며 서글서글하게 말씀하시는게 열렬한 西洋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앉아서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이 많은 아저씨같은 기분이 듭니다. 올해 65세가 되셨다니 여기서 나서 한평생을 한국사람들

과 호롭하고 울고 웃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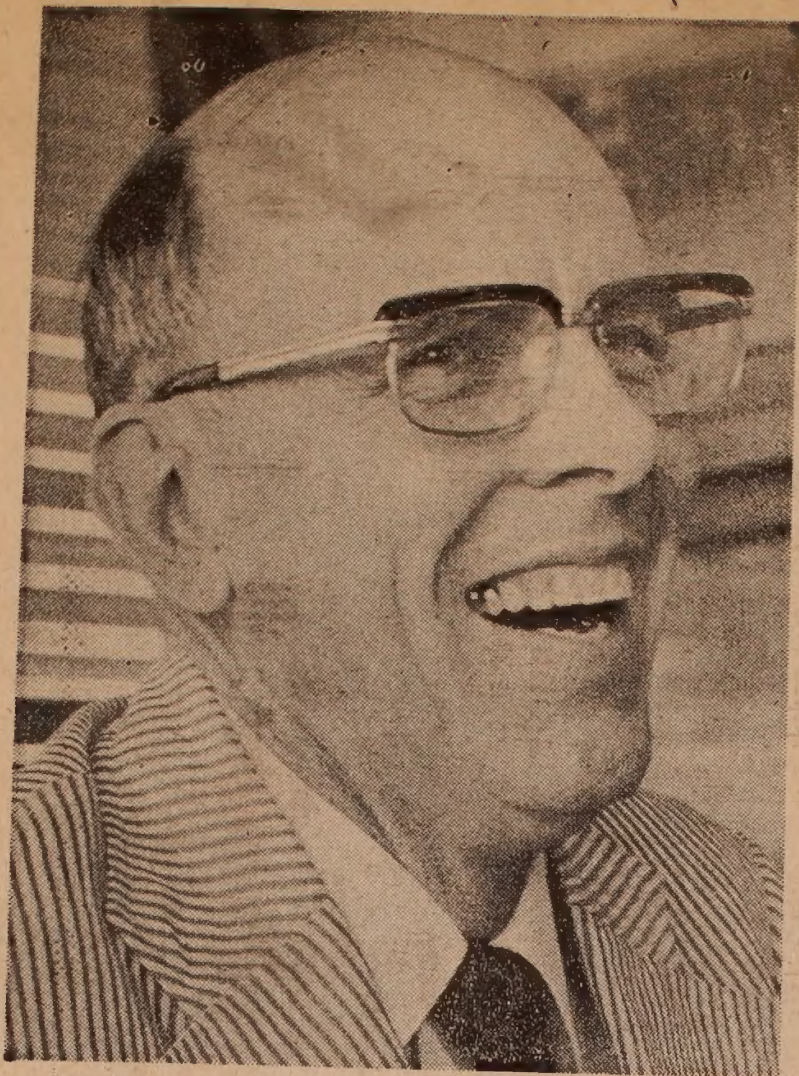
누구든지 자기가 태어난 곳을 흔히 고향 땅이라고 하는데 낯선 美國땅을 향해 한 국 땅을 떠나는 울적하고 좌잡한 심정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모페트목사 이후 설설합니다. 흔히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서

글롭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 친구들과 함께 뛰놀며 배가 곯어진 제가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경험과 인생을 살아오지 않은 본은 심사의 이해할수 없을 것입니다. 토머스·윌브(Thomas Wolfe)의 小說題目인 You can't go home again이란 말처럼 母國을 떠나야 한 다고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요.

한국의 옛 時調에 「5백년 都邑地를 필마로 돌아드니 山川은 의구한데 인물은 간데 없네」라는 말이 있지요. 바로 이 時調를 지은이의 哀絶한 마음 한 구석을 이겨서야 알듯 합니다. 비록 美國에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여름放學때마다 꼭 찾아오겠습니다. 生家가 平壤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情은 친구와 아버지, 어머니의 愛情이 구석구석 배어있고 개구장이 동네 꼬마들의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소리가 남아 있는 平壤에 못가보고 떠나는 마음도 무척 무거우리라 고 생각되는 데...

모페트목사 11 누구에게나 자기가 태어난 집과 어린 時節을 보낸 곳의 鄉愁는 짙을 것입니다. 과란 눈의 모페트라고 이제 예의가 되겠습니까. 사실 부님 땅을 그리워하는 내 마음은 어느 失鄉民 못지않습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영원히 이곳에 두고 갑니다.』 모페트 목사의 밝은 웃음뒤에는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이 짙게 깔려 있었다.

『내 故郷 한국,은』

平壤서 낳아 자랐으니 "난 틀림없는 失郷民" 宣敎 100년, 先親 계선 많은 功績 남겨

니다. 失郷民이란 말이 나왔으니 까 하는 얘이지만 이북에 친 적이 없어도 저는 失郷民임에 틀림없어요. 南北統一을 그리워하는 모든 한국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도 남지만 고향에 가고 싶은 내 맘속도 어느분 못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 오랫동안 머

무는 동안 한번쯤은 평壤에 가 볼수 있었을줄 알았을니다. 西門밖 洋村이 내가 태어난 곳이라니다. 바로 普通門 옆이었는데... 지금까지 옛집이 남아있을까 지금은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무때고 南北이 타트이면 미국에서라도 제일 먼저 달려 오겠습니다.

고향에 가는 길에 뒤쳐져서 야 되겠습니까.

女性교육에 심혈 쏟고

모페트목사 父子의 宣敎역사가 1백여년에 가까운데 부친인 새뮤얼·A·모페트(韓國名 馬布三悅) 목사가 우리 나라에 오신 것은 언제였을 나까.

모페트목사 아버님은 1889년 미국을 떠나 1890년 1월 25일이 땅에 처음 왔습니다.

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초기 선교사의 한사람이 있었습니

다. 평壤에서 선교사업을 처음 시작했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최초의 목사 사였을 나다.

아버님은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 나다.

長老敎會 단산하에 2백개가 넘는 크고 작은 學校를 세웠

지요. 崇實大에서 崇田大로 발전

해나간 平壤崇實學堂 건립을 비롯해서 崇義學堂, 崇德學堂 등

을 세워 여성교육에도 심혈을 쏟으셨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많이 세워 한국의 질

년을 많이 가르치 이 나라의 近代化를 도운 것도 큰 업적이 겠지만 獨立운동과 先親과의 親한 이야기도 참 많아요. 神社 참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1936년 일제관헌에게 추방명령을 받았어요.

추방통고서를 갖다 주며 30분안으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때 눈앞이 캄캄하고 아 절하더군요.

日帝에게 밀게 보인 것은 先親 계서 神社 참배를 안한 것은 물론이고 기독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참배를 면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3. 1 獨立運動 때의 平壤시 위와도 관련됐고 1백5인사 件 때도 활발하게 앞장섰습

니다. 후일에 이런 공로를 인정

받아 한국정부로부터 文化功勞勳章을 받았지요.

宣敎사업은 물론 敎育과 獨立투쟁에 앞장선 先親의 옛 모습속에서 가장 인상에 남

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나다.

모페트목사 정확한 年代는 기억 못하겠지만 崇實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정에 모여 시

위를 벌였을 때라고 생각됩

니다. 높은 국기 게양대에 大極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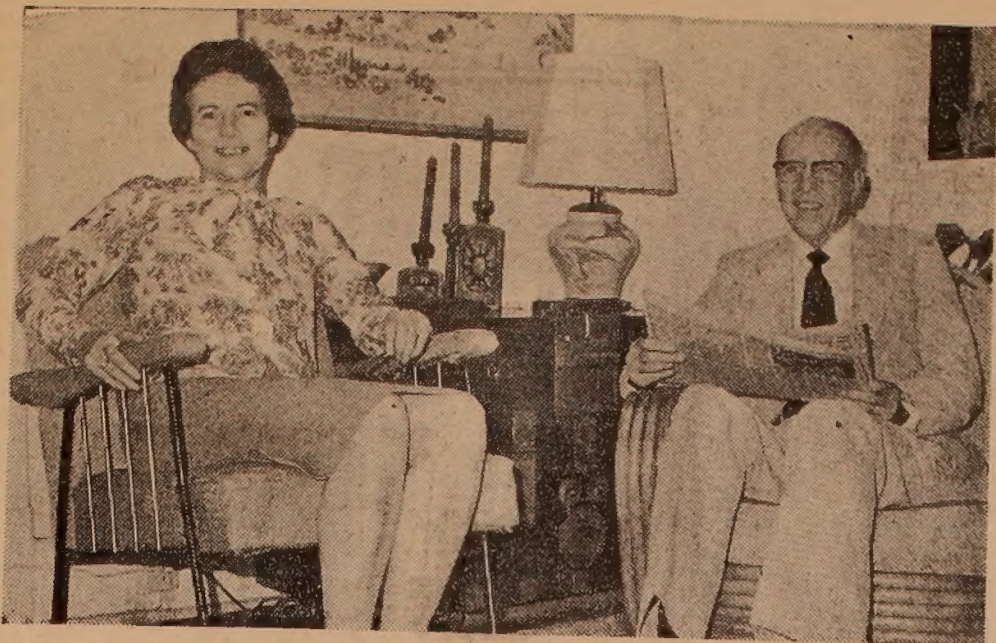
가 펄럭이고 학생들의 외침은 하늘을 찌렀어요.

日曆들이 물러와 大極旗를 강제되라고 내리라고 고향치는 것을 보고 先親 계서 달려

情든 친구들 모두 한국에: 美國은 他郷

극기를 내리게한 다음 공개 접
어서 先親이 이를 아주 정성
껏 보관하셨습니다.
先親께서 목숨보다 귀히
여겼던 太極旗를 현재 崇田大
박물관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平壤은 내 태어난故郷
— 다시 고향 땅 平壤으로 말



◇이삿집을 싸기에 바쁜 모페트 목사 부부. 가구와 서화는 온몸 아버님이 쓰셨던 때물은 골동품들이었다.

더리를 둘러앉습니다.
서울과 平壤의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平壤 땅과 함께 잊혀지지 않는
追憶이 있다면 들려주시
요.

■모페트 목사 이름 다음을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
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서울과 平壤을 따로
따로 떼어놓고 어느곳이 아
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린시절이 강하게 남
아 있는 것은 태어나서 죽살아
온 平壤쪽이겠지요. 북쪽의 고
향 땅을 생각하면 늘 그리워
지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延世대에 계시는
캐나다인 醫師 로브씨이고 또
한 사람은 제 한살아래 동생인
大邱 啓明 大理事長 하워드·F
·모페트(韓國名 馬布和悅)
의 사입니다.

歸國하면 宣敎學강의 작정 統一되면 제일 먼저 平壤에

上流쪽에 있다가 물이 하
도 불어나는 바람에 높은 나
무에 배를 잡아냈어요.
자꾸만 불어난 물이 점점
높아지면서 나무위까지 차버
리는 거예요.
이젠 죽었다고 생각하자 아
버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들을 격려해주시면
서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
舟」라고 말씀해 주시던 일
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急流가 물러와 나무
뿌리를 흔들리째 때버렸더라
면 아마 영원히 물살에 휩
쓸려 가버렸을 겁니다.

學校 학생이었어요. 학교만 파
하면 여름엔 大同江 靑교 아래
서 벽간고 가을엔 모란봉에
올라가 놀았읍니다.
이들과의 交遊가 고향의 품
이 있다면 나에게 惡夢도 있
었어요. 첫 번째 것은 3·1만
세사건 이후 日警이 가택수색
한 끝에 丹世은 徵文을 인쇄
했던 기계를 발견했을 때였고
다음번은 을추년 홍수로 大
同江이 넘쳤을 때 하마터면 물
에 빠져 죽을 뻔한 일입니다.
그때 친구들과 가족들이 어
려 船遊하러 大同江에 나갔
지요.

지금도 그때의 惡夢을 되
새기면 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고 믿고 있고 믿고 있어요.
세계적인 일은 1927년 한
국사람들만이 다니는 崇實學
校 敎구팀이 日本 대표팀을 격
파했을 때의 그 가슴 벅찬 感
激입니다.
그후 우리 가족들은 강제 추
방 당했습니다.
저는 中國에 건너가 燕京
大와 南京神學大 그리고 미
국에 건너가 프린스와 예일
大에서 神學공부를 했지요.
55년 선교사로 다시 한국

에 왔을 때 나무기는 太極旗
를 보고 이제 獨立된 韓國
에 왔음을 실감했던 기억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고 잊
을 수도 없는 나의 메모리입니
다.

■한국弟子들이 많아요
— 부인(Eileen F. Moffett, 53)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
어서 宣敎3대가 2대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아쉬움이 많
겠습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모페트 목사씨는 한국에
서 長老敎神大 大學院長도 지
내고 協同學長도 지냈읍니다.
거기다가 延世大와 崇田大
의 理事도 역임했기 때문에弟
자들이 많아요.

비록 내 슬하에 아들·딸들
이 없어서 先親과 저 그리
고 내 아들에 이르는 宣敎3대
까지는 이어나간 못해도 내
가 가르친 수많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나의 뜻을 받아들이
어 한국 땅 구석구석에 基督敎
의 福音을 전파해주고 있으
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저의 아들·
딸들이고 저의 아버지와 나
를 이어가는 宣敎3대들이
입니다.
— 모페트 목사님의 韓國이름
이 무척 재미납니다.
어느분이 作名했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풀이해 주실까
요.

■모페트 목사님 이름은 先
親께서 孔子님의 「三樂」을 본

따 지어두셨습니까.

「三樂」을 그대로 해석하면 세가지 기쁨이 아닐까.

첫째 기쁨은 양친 두분이 모두 계시는 기쁨입니다.

저의 경우는 아버님과 어머니님이 모두 다 하늘나라에 계시고 믿는사람들에게 한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즐거움이 있지요.

둘째번 기쁨은 가족이나 가정 모두가 사회에 부끄러움이 없이 지낼수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부사이에 愛情이 두터워야하고 兄弟사이에 우애가 있어야 하는 것이요.

남에게 지리질없이 몇몇한 수 있는것이 바로 두번째 기쁨이겠지요.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부끄러움은 家門의 傳統과 같은 것이라고 할수있겠습니다.

세번째 기쁨은 師弟간의 두텁고 친하지 않은 믿음들을 들 수 있겠지요.

모든 분야나 계층을 다룬다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과의 成果보다 유대 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25년동안 이런 師弟관계를 통해 많은 열매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늘에 두부모님들이 잘 계시니 「一樂」이고 우리 가족이 세상에 부끄러웠으니 「二樂」이며 내가 가르친 훌륭한 제자들이 많으니 「三樂」을 이룬셈이지요.



◇모페트 목사가 아버지(馬布三悅)앞에서 있다. 이곳에서 태어나 백가 끊어진 모페트목사는 이제 65세의 耆人이 됐다.

아마 한국사람가운데서 또 내이름만큼이나 훌륭하고 뜻깊은 이름을 가진분들은 몇분 안되실겁니다.

「馬三樂」. 이 한국이름새 글자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많은 우수한 民族이 자랑입니다.

한국민족 優秀하나 과벌만드는게 短點

한국사람들의 가장 나쁜 점은 「세력」.

수한 민족이에요.

라를 만들어 보십시오.

다시 말해 과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수한 文化유산,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무엇보다도 남의 나라에 뒤떨어질것이 없지않습니까.

이점만은 꼭 고쳐서 한번 멋들어진 나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런 과별意識만 없으면 한국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에요.

우수한 文化유산,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무엇보다도 남의 나라에 뒤떨어질것이 없지않습니까.

이제 미국에 돌아가시면 이

면 일흔 하십니까.

모페트목사 부임자가 어노분이 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8월중순께 미국에 돌아가던 母國인 프린스턴大學에서 宣敎學을 가르칩니다.

한국에서의 추억, 그리고 先親에 이어 내가 받았던 박애와 苦難, 이 모든것들이 나의 장외를 충실히 해주는 데 깊은 뜻이 있을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몸은 미국땅에 잡니다. 하지만 정신은 이곳에 두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은 내가 태어난 금수강산이고 나를 키워준 大地입니다.

내 고향이 자랑스러울때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내 가족 모두가 기쁜것입니다.

부디 福받은 이 땅에 더 큰 福이 가득하길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기고 싶은 마음의 禮物이 있다면...

모페트목사 祝福받은 이 땅에서 誠心을다해 봉사할수 있도록 주선해준 이 땅의 모든분들에게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하나 韓國사람은 韓國사람다와지길 부러웁니다.

아무리 西洋사람 용내를내봐도 한국인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사람이 한국사람 다들 때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기에 문입니다.

八嶺南嶺기자